

연예기획

STAR FOCUS

SBS '파라다이스 목장' 화제의 키스신 유하나



최강창민
키스
잘해요!

한마디 한 후 악플 폭풍이...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최강창민과의 키스신, 악플과 안티 팬은 처음부터 각오했죠.”

드라마라면 오래 한 번쯤은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매력적인 ‘키스신’. 연기자 유하나도 얼마전 ‘키스 열풍’에 동참해 화제를 모았다.

SBS 월화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극본 장현주·연출 김철규)에서 박진영 역을 맡은 유나는 상대역 최강창민과 로맨틱한 키스 장면을 연기했다. 여배우로서 오래 기억할 달콤한 추억 일 줄 알았던 이 장면은 오히려 그에게는 ‘악몽’(?)이었다. 촬영 이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강창민이 ‘키스를 잘 한다’고 말하면서 고난은 시작됐다.

“대본을 받을 때부터 각오는 했지만 설마 파급력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죠. 촬영 전날 제 미니 홈페이지에 ‘키스하면 죽는다’부터 온갖 악플이 쏟아졌어요. 동방신기라는 인기 그룹의 멤버라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유나는 ‘파라다이스 목장’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다. 2007년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 2009년 ‘솔약국집 아들들’ 등에 출연하며 토크 튀는 매력으로 시선을 모았다. 시청률 40%가 넘는 인기 드라마에 잇따라 출연하고, 항공사 광고 모델 등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잠시 시련이 찾아왔다.

“소속사 문제 등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1년 정도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그동안 호흡이 긴 주말 드라마에만 출연했으니까 ‘나에게 휴가를 주는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데뷔하는 기분”이라는 그는 최강창민과의 호흡에도 만족해 했다. 유나는 최강창민보다 두 살이 많아 촬영장에서는 “창민아”, “누나”라고 부른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는 연기 베테랑인 선배들

예상 넘은 안티팬...동방신기 인기 실감
실제론 누나·동생 사이...오해 마세요

행운의 ‘파라다이스...’ CF도 재계약돼

에게 배워서 연기하는 처지였어요. 저도 아직 미숙한데, 처음 연기하는 창민이와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도 있었죠. 막상 시작하니 창민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걸 보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파라다이스 목장’은 네 명의 청춘 남녀의 엇갈린 인연을 담았다.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고 6년 만에 재회한 최강창민과 이연희 커플, 옛 연인인 주상욱과 유하나 커플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현재 촬영을 모두 끝낸 상태다.

“지난해 초부터 6개월 동안 촬영지인 제주도에 있었어요. 방송 편성이 미뤄져 자연스레게 사진 제작드라마가 된 거예요. 비슷 한 나이 또래 연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니 가족처럼 지냈죠. 촬영이 모두 끝났으니 요즘 ‘본방사수’하며 서로 모니터링 해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유나는 최근 모델로 활동하는 아시아나 항공과 재계약을 했다고 자랑했다. 박주미, 한가인, 이보영에 이어 단아한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라면 선호하는 모델이라 그녀가 느끼는 자부심도 남다르다.

“시청 근처나 공항에서 제 얼굴이 있는 광고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친구들도 아직 신기한지 가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줘요. 처음 면전을 봤을 때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시작하는 각오로 하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티팬은 처음부터 각오했어요.” SBS 월화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에서 최강창민과 로맨틱한 키스를 연기한 유나는 “각오는 했지만 파급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죠”며 키스신을 연기하면서 남다른 고민을 털어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베를린 사로잡은 동양의 미 ‘화엄경’

스타 그때 이런 일이 (2월 21일)
1994년 장선우 감독 알프레드 바우어상

1994년 오늘, 제4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장선우(사진)감독의 ‘화엄경’이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했다. 알프레드 바우어상은 베를린 영화제를 만드는 데 업적을 세운 알프레드 바우어 촬영감독의 이름을 따온 상. 수

상작과 수상 감독에게는 금곰상과 은곰상 등에 못지 않은 명성을 안겨준다. ‘화엄경’의 수상은 1961년 김승호 주연 ‘마부’가 은곰상을 받은 이후 33년 만의 쾌거로 받아들여졌다.

고은의 작품을 영화화한 ‘화엄경’은 한 소년의 구도행각을 불교의 세계로 그린 작품. 아역배우 오테경과 원미경, 이혜영, 신현준 등이 출연했다. 해외, 특히 서구 영화 관계자들과 관객들에게는 동양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갔다고 당시 언론들은 전했다.

1980년대 초반, ‘열린 영화’를 표방하며 한국영화의 리얼리즘에 대한 연구와 운동에 나섰던 장선우 감독은 ‘화엄경’을 연출한 이 즈음 자신의 색깔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성공시대’와 ‘우

묵배미의 사랑’ 등으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장 감독은 1991년 ‘경마장 가는 길’로 이전과는 조금씩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며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박유환 “내 라이벌은 친형 박유천”

MBC ‘반짝반짝...’ 연기 데뷔
“꼭 성공해서 형 도움 갚겠다”



‘누구의 동생’이란 타이틀은 막 활동을 시작한 연예인에게는 부담스러운 부연설명이다. 이미 스타로 인정받는 형제 혹은 자매를 둔 신인들은 대부분 후광효과를 경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박유환(20)은 좀 남다르다. “저는 형을 넘어설 거예요”라고 말하는 대담하고 쿨한 면을 지녔다.

박유환의 형은 동방신기 출신으로 지금은 JYJ로 활동하는 박유천이다. 박유환은 “유명한 형의 동생이란 사실은 여러 모로 좋은 점이 많다”며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 제가 더 성공해서 형을 이끌고 가겠다. 이건 꿈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유환은 MBC 주말 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극본 배유미·연출 노도철)으로 데뷔했다. 그가 연기를 시작한 건 형의 영향이 컸다. 박유환은 지난해 연기 수업을 받던 형을 따라다니며 연기를 처음 접했고, 이후 연기자의 꿈을 키웠다.

“형이 ‘성균관 스캔들’을 위해 연기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욕심이 생겼죠. 형한테 진지하게 ‘연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연예계는)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하면서요.”

가족들은 박유환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형이 연예인이 된 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며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크

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박유환이 연기에 데뷔하면서 형인 박유천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별명이 생긴 것. ‘동생 바보’. 이제 막 연예계에 데뷔한 동생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많아지자 ‘동생만 바라 본다’며 팬들이 ‘동생바보’라고 별명을 붙였다.

‘반짝 반짝 빛나는’에서 박유환이 맡은 역은 나이 터울이 많은 60대 형을 둔 고등학교 한서우다. 드라마에서 그의 형은 중견 배우 장용. 이 외에도 고두심 박정수 길용우 등과 호흡을 맞춘다.

박유환은 “활영하러 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배우자’고 생각한다”며 “자랑 같지만 어른들께 인기가 좀 있는데 특히 밥 때만 되면 서로 저를 찾는다”고 유쾌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제2010-28648(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와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보험특약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파워에이징’을 원한다면...

일어탁수(一魚濁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전체의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한다. 회사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실수로 공동프로젝트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여러 빛깔이 조화를 이루기에 더욱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당신의 노고와 화사동료의 노력이 융화될 때 비로소 그룹의 파워(Power)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파워란 단지 업무능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원하는가. 고령화 시대에 좀더 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파워 에이징’이라는 단어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웰에이징을 포함한 힘 있는 삶의 추구란 모든 이의 염원이다. 일어탁수는 신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작은 암세포 하나가 온몸으로 전이되는 무서운 현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워에이징이다. 직장인의 파워에이징을 위한 오피스 요가를 소개한다.



1.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붙이고 양발은 어깨 넓이 두 배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합손을 한다. 호흡을 내뱉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턱과 어깨가 만나도록 하고 합장한 손은 왼쪽으로 보낸다. 이때 무릎을 모으고 양 발끝을 살짝 들어올리며 항문을 최대한 조여 준다. 10초 정지 좌우교대 3회반복.



2. 무릎과 양발을 붙이고 앉은 후 오른팔을 왼쪽 옆으로 보내고 왼팔로 직각이 되도록 감싼 후 잡아당긴다. 이때 턱과 오른쪽 어깨가 닿도록 한다. 동시에 팔꿈치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한다. 10초 정지 좌우교대 2회반복.



3. 서서 왼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의자에서 짚고서 몸을 앞으로 숙인다. 호흡을 내뱉으면서 상체를 숙이고 양팔을 들어올린다. 이때 허벅지를 강하게 수축시킨다. 다리를 바꾸어서 동일하게 수련한다. 10초 정지 좌우교대 2회반복.



※효과:

1. 직장인의 경직된 어깨와 목을 이완시키며 복직근을 강화하고 회식으로 인한 복부비만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2. 계속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의 하체피로를 해소하고 골반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전신 피로회복을 위한 오피스요가 아사나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주의:

1. 모든 아사나를 좌우 동일하게 수련해보고 잘 안되거나 아픈 쪽을 두 배로 수련한다.
2.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전굴 자세 시 호흡을 내뱉고, 뒤로 젖히는 후굴 자세 시 숨을 들이마신다.

글·동작 최경아

성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원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